

지구촌 환경지침 '광주 선언문' 무엇이 담기나

# 환경도시 평가 기준·지표 제시될 듯



## 도시 에너지 사용량 절감 강제 방안도

12일부터 환경의제와 관련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 13일 발표되는 '2011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이하 광주정상회의)'의 결과물 '광주선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선언이 지난 2005년 샌프란시스코의 도시환경협약을 구제화하면서 1992년 리우선언, 1997년 교토의정서와 같이 구체적인 실천을 담보해낼 경우 세계 속에 '환경도시=광주'라는 인식을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새로운 해법 제시해야=도시에는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면서 세계 에너지의 69%를 소비하고,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 자체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일 수밖에 없으며, 광주정상회의에서는 도시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 자연생태계 복원,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등을 '강제'할 수 있는 방

안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광주시가 공동으로 작성중인 환경도시의 기준과 지표, 그리고 도시정경개발계획 등이 2013년 발표되며, 이번 회의에서는 참가도시들이 그 초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도시 간 협력력 확대와 저탄소 녹색도시화를 위해 새로운 협력기구인 '도시 환경 협 약 회원 도시 연합(UEAMA)'을 출범시키는 한편 사무국 설치, 격년제 회의 개최 등 도시환경협약의 지속적인 체계 구축도 논의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선언에 들어갈 문구를 놓고 UNEP와 조율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탄소배출 억제 대책 내놓아야=광주선언에 이어 부속서에는 참가도시들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실리게 된다. 여기에는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자발적인 단계별 감축목표 설정,



'2011 도시환경협약(UEA) 광주정상회의 환영만찬'이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호텔 3층 연회장에서 세계기구 대표와 세계 각 도시 정상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광주정상회의는 1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안건회의, 주제별 분과회의 등 공식일정에 돌입한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친환경 건축물 확대 및 대중교통 우선 등 공공정책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촉진, 시민 참여 대책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또 UNEP와 광주가 공동개발하는 환경도시의 기준과 그 평가지표에 따

라 도시민의 건강과 도시의 패색성 증진을 위한 대기·수질 등 계량화된 도시별 환경개선 목표의 설정 및 달성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쓰레기, 교통, 물, 자연생태, 도시계획, 환경보건 등 7개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도 포함된다.

특히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계획, 에너지 재활용 정책, 저탄소형 교통정책, 통합수자원관리정책 등이 새롭게 제시될 전망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한나라당 국회 예결위원장들 광주·전남 예산확보 나섰다

### 이정현 의원 주선... 내일 광주서 예산 간담회

한나라당 국회 예결위원들이 광주에서 광주·전남지역 현안 예산에 대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정현(비례) 의원은 "한나라당 예결위원회가 오는 13일 오전 11시 30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전남도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사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 의원과 장운석 국회 예결위 간사를 비롯한 구상찬, 배영식, 이정현, 조원진 의원 등 한나라당 국회 예결위원 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4년 연속 예결위원을 맡은 곡성 출신 이 의원의 주선으로 이뤄졌으며, 참석위원 가운데 4명 이상은 예결위의 핵심인 계수조정위원회에도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내년도 광주·전남 지역 현안사업 예산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예산에서 이미 반영

된 사업 외에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추가반영해 줄 것을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에게 요청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광주 연구개발 특구 육성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3D융합산업육성 ▲클린디젤 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 ▲UN대학 부설연구소 유치 등 신규 또는 추가사업의 예산 반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삼갈 미디어 R&D 산업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 ▲압해-암태간 새천년 대교 건설 ▲수출 양식어장 양식업 조성 ▲F1국제 자동차경주대회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요청한 사업에 대해 검토작업에 들어갔고, 내년 호남지역 예산확보와 관련해 일자리 확보를 포함한 지역민이 먹고사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하고, 다음으로는 미래 호남발전을 위해 선점해야 할 성장동력 분야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환경의 미래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 기후변화 대응 세계 환경선언들

### 광주정상회의 의제 본격 논의

### 1987년 몬트리올~ 2011년 광주정상회의

2011 도시환경협약(UEA) 광주정상회의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안건토론회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11일 "유엔환경계획(UNEP), 샌프란시스코시와 공동주최하는 광주정상회의가 12일 오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강문태 광주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세계 환경역사에 남을 정상회의 본회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120여개 도시 정상 및 UN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날 오전 개회식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보낸 축하 메시지가 전달된다. 또 UNEP 아미나 모하메드(Amina Mohamed) 사무총장과 후앙크로스(Fuan Cros) 유엔해비타트(UN HABITAT)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본격적으로 지구

환경의 미래를 위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방안에 대한 회의가 계속된다.

회의에서는 친환경도시로 유명한 미국 샌안토니오 시, 네덜란드 알미르 시의 우수사례발표에 이어 이번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의 주요 안건이자 지구환경을 위한 새로운 실천방안인 '도시환경 평가지표'와 '도시 청정개발체제'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오전과 오후에 걸쳐 열리는 에너지 효율성 및 기후변화, 쓰레기 감축, 스마트 녹색교통, 물 수요 관리 및 수질관리, 자연생태 등 5개 분과 회의에서는 도시 단체장이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다양한 측면의 접근법들을 제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세계 최초의 환경 관련 국제협약은 1987년 몬트리올의정서로,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가 목표였다.

이후 세계 환경이 악화되면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178개국 정부대표와 민간단체가 모여 지구환경보전 문제를 논의한 끝에 '리우선언'을 발표했다.

여기서 유명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과 '의제 21' 등이 채택됐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과에 대한 책임 부여, 지구 생태계의 보존 등 27개의 행동 원칙도 정해졌다. 1997년 교토의정서는 1990년을 기준으로 선진국 38개국이 2008~2012년까지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했으나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탈퇴하면서 동력이 상실된 바 있다.

다음달 28일부터 12월9일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는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선진국 간은 물론 모든 국가가 의무감축하자는 선진국과, 개도국만은 자발적 감축을 해야한다는 개도국의 입장 차가 여전히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가 아니라 도시들이 참가한 환경협약은 2005년 6월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세계 52개 도시 시장들이 샌프란시스코 맺은 것이 처음이다. 이 협약은 에너지, 쓰레기 감축 등 7개 분야 21개 조항에 대한 환경협약 사항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2012년 환경의 날에 이를 평가하자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1년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는 2005년 샌프란시스코의 협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출발점으로, 이러한 도시 간 환경협약 체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선진국 도시와 개발도상국 도시들의 점점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국민이 공감하고 존경하지 않았을까?!



대한민국입니다

# 세기보청기

##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삼남로점(합동점) 상일로 입구: 022276-056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입: 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약) 입: 027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 02419-3388 경기 안현점(구.인화점) 입: 032421-2288 부평점(부평역) 입: 032617-5110 수원점(남문) 입: 031246-5110 의정부점(모천로) 입: 031821-6655 안양점(백산로) 입: 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입: 031668-5110 용인점(용인내거리) 입: 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 입: 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입: 032329-4400 남양주점(평내로) 입: 071823-9803 부산 서면점(서면로) 입: 051818-8800 서면점(서면로) 입: 051256-7200 울산 울산점(울산로) 입: 05238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입: 055251-0100 진주점(중앙로) 입: 055745-4870 대구 동명점(동명대) 입: 053425-4440 삼척점(삼척대) 입: 053426-1511 남일점(남일대) 입: 053425-7575 경북 포항점(포항대) 입: 054044-5110 안동점(안동대) 입: 054659-2288 광주 광주점(안동대) 입: 062225-5110 광주점(백운로) 입: 062651-4477 한남점(한남대) 입: 061705-0945 전북 전주시점(전주대) 입: 063225-5722 군산점(군산대) 입: 063446-1098 익산점(익산대) 입: 063638-6200 남원점(남원대) 입: 063632-3626 대전 대전점(대전대) 입: 042225-5110 대전점(충주대) 입: 042222-3388 대전점(대전대) 입: 042225-6300 울산 천안점(천안대) 입: 041553-2888 광주점(광주대) 입: 041852-5110 충북 청주점(청주대) 입: 043225-5110 대구 수리산점(수리산대) 입: 043222-1177-8 충주점(충주대) 입: 043852-1414 강원 강릉점(강릉대) 입: 033647-0588 춘천점(춘천대) 입: 033253-5110 제주 제주점(제주대) 입: 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상당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부 문의전화 021538-9388

**세가지 보청기**

- 광주 귀도청기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 박은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